

국민의힘 이준석 바람 ‘태풍급’ 나경원·주호영 “당심으로 뒤집기”

전체 투표의 70% 당심에 기대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 돌풍’이 갈수록 위력을 키우는 모습이다.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나머지 4명의 중진급 주자들은 ‘뒤집기 묘수’를 고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알앤씨,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0%포인트)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46.7%의 지지를 얻어 나경원(16.8%)·주호영(6.7%)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PNR피플네트웍리서치가 지난달 1일 진행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당시 나경원 후보가 18.0%, 주호영 후보가 13.4%의 지지율로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초선 김용 의원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지난달 6일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이후로 지지율 판세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같은 기간 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13.9%(5월8일)에서 20.4%(5월14일), 26.8%(5월22일), 40.7%(5월29일) 등으로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나경원 후보(18.5%→15.5%→19.9%→19.5%), 주호영 후보(11.9%→8.4%→9.5%→7.2%)의 흐름과는 확연한 차이다. 유일한 30대 주자로서 이 후보가 상징하는 세대교체론이 그만큼 위력적임을 발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진 주자들은 전체 투표의 70%를 차지하는 ‘당심’에서 역전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처럼 승부는 결

국 당원 투표에서 갈린다는 것이다. 당시 오세훈 후보가 국민여론조사에서 과반 득표했지만, 70% 비율의 당원 투표에서 선전한 황교안 후보가 당권을 거머쥐었다.

나경원 후보 측 관계자는 6일 “실제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면 일반 여론조사와 차이가 있다”며 “당심은 안정적 리더십을 통한 정권교체를 내세운 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 측도 “아직 TV토론이 3차례 남았다. 가장 짧은 시간에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 후보가 누구인지 계속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후보는 통화에서 “대의원들을 만나보면 70% 당심을 가보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고 했고, 조경태 후보도 전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역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앞줄 가운데)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유동욱 개성공단기업인협회 고문, 문창섭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개성공단 실마리 찾겠다” 조만간 방미

피해 기업 손실보상 강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5일 개성공단 복원과 관련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간담회를 하고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북측과도 공감대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 손실보상법의 취지

인데, 개성공단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놓고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상호 모순”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 대표들은 이날 송 대표에게 개성공단 정상화와 교류협력 중단 손실보상 특별법 추진, 약 2300억원의 피해액 전액 지원과 정책대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폐쇄 후 기업인들에게 남은 건 막대한 부채와 하역없이 인내해야 하는 현실뿐”이라며 “다 죽고 포기하면 누가 다시 정부를 믿고 남북경협에 뛰어들겠느냐. 점점 지쳐 쓰러져가는 개성 기업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송 대표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현충원을 찾아 베트남전 영웅 채명신 장군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의 묘소 등을 참배했다. 지난해 2월 한강에서 투신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6·25 참전 유공자인 김은용(94) 옹의 자택을 방문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3일 당대표로서 현충원을 첫 방문했을 때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채 장군과 안 치안감을 참배했다. 두 분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이다. 국가 영웅에게 예를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24%, 윤석열 21% ‘양강 구도’

궤멸 대권선호도...이낙연 5% 이준석 첫 등장에 3%...4위 기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선봉을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전 최고위원이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의 지지를 얻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로 선두 양강 구도가 4개월째 이어졌다.

이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5%), 이준석 전 최고위원(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 정세균 전 국무총리,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상 1%)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권주자들은 1% 미만을 얻어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후

보명을 불러주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은 결과다.

갤럽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첫 등장한 이 전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대표 예비 경선을 선두로 통과해 집중 조명됐다”고 분석했다.

내년 대선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6%, ‘현 정권 교체에 대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50%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는 38%로 지난 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 5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 국민의힘 27%, 정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현충원 참배 윤석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만들 것”

사실상 정치행보 나선 것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동작구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을 통한 ‘내공 쌓기’에 주력했던 윤 전 총장으로서 4·7 재보선 사전투표 이후 두 달여 만에 사실상의 정치행보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총환담 지하 무명용사비와 위패봉안실에 헌화·참배한 후 월남전 및 대한전 작전 전사자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현충원을 하루 앞두고 현충원을 찾은 이면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현

충원 방문은 대개 국무위원이나 정당 대표 등 유력 인사들이 임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 그만큼 상징성이 큰 장소다. 안보 수호와 보훈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상징하는 현충원을 찾은 것은 그만큼 대선 도전의 굳은 결심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은 현충원 방문 특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월 4일 검찰총장 신분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바 있다. 당시 방문록엔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대권 도전 선언이 임박했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



송갑석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고,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 상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우수법률안에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됐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 기술의 비밀관리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기술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수년간 국정감사 및 각

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 대중공업과 LG전자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를 청취하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0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과 3년 연속(2018-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또 초선 국회의원이 많은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아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남정치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과 영업 정보를 탈취당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철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통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통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칸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소리브집,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리엔 정남 매 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카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직선사적 정남 정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동기 ☎ 010-3635-793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힐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시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가매매 (상무/치구)

1)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 8천만원**

2)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2천만원)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사무실, 바, 휴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010-6670-9800

장성토지 (분양/매매)

광주에서 **20분(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1) 100평 → 8천
2) 150평 → 1억1천
3) 300평 → 2억

총 1,778평 → 9억(용 4억 가능)

(주택, 주말농장, 창고, 투자 적합)

062-382-5500